

광주청년 '4000만원' 희망…수도권 유출 '임금이 변수'

■ 광주경총·조선대, 취업 인식도 조사

"괜찮은 일자리·보상 땐 지역 남겠다" 73.9% 긍정
기업 제시 3000~3500만원 54.6%…눈높이 차 뚜렷

광주 청년들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와 초임 4000만원 이상의 임금 수준을 지역 정부의 핵심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적합성과 일정 수준 이상의 보상이 보장된다면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광주경영자총협회와 조선대학교는 지

역 대학생 및 청년 307명과 지역 기업 10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학생들이 지역 취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전공 관련 일자리 부족 (46.6%)'이었다. 이어 '낮은 급여 수준

(18.9%)'이 뒤를 이었다. 특히 희망 초임 연봉과 관련해 응답자의 44.6%가 4000만원 이상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반면 지역 기업이 제시하는 신입 초임은 3000만~3500만원 구간이 54.6%로 가장 많아, 청년들의 기대 수준과 기업 현실 사이에 뚜렷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청년층의 지역 이탈이 단순한 수도권 선호가 아니라, 전공 적합성과 보상 수준에 대한 현실적 판단에 기초한 선택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로 '광주에 괜찮은 일자리가 있다면 취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73.9%에 달해 양질의 일자리 확보 여부가 정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청년들은 미스매치 해소 방안으로 '현장 실무 중심 교육 강화(43.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론 위주의 학습보다 기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직무 역량을 갖추고 싶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기업 역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큰 애로로 '지원자의 직무 역량 미흡(46.3%)'을 꼽았으며, 신입 채용 시 '관련 전공 및 기술 자격(36.8%)'과 '실무 경험(32.2%)'을 중시한다고 밝혔다.

인재상과 관련해서는 '소통·협업 능력 (28.0%)'과 '책임감(27.4%)'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의사소통 능력과 팀워크·

협업 능력을 중요하게 본다는 응답은 각각 91.7%에 달해 직무 기술뿐 아니라 조직 융화력 역시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강화해야 할 교육 분야로는 기업의 48.1%가 '현장 실무 중심 교육'을 1순위로 지목해 학생들과 인식이 일치했다. 지역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으로는 '청년 채용 장려금 등 재정 지원 (66.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역 일자리 문제의 본질이 단순한 일자리 수 부족이 아니라, 전공 적합성과 임금 기대치의 구조적 불일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선 산업 구조 고도화를 통한 양질의 일

자리 확대와 함께,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윤성 조선대학교 취업학생처장은 "학생들의 지역 정부 의지가 높은 만큼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현장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산학협력 커리큘럼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장은 "청년 유출은 지역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회원사들과 협력해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근로 환경과 임금 체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와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시, 제1호 자율상권구역 '세정아울렛' 지정

지역상권위원회 의결…상권 자생력·경제선순환 구조 구축 최대 100억 상권활성화사업 참여…온누리상품권 특례 적용

광주 제1호 자율상권구역으로 서구 '상무로자율상권구역(세정아울렛)'이 지정됐다.

이는 앞으로 5년간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첨예 된 도심 상권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12일 지역상권위원회를 열고, 서구가 신청한 '상무로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생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퇴한 상권의 자생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상업지역 50% 이상 △도·소매 점포 100곳 이상

△최근 2년간 사업체수·매출액·인구 수 중 2개 이상 감소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상인·임대인 3분의 2 이상 동의와 상생협약 체결이 필수다.

'상무로자율상권구역(세정아울렛)'은 최근 상권 위축과 매출 감소 등으로 활력이 저하된 지역으로, 상인과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자율적인 상권 회복 의지를 모아 이번 지정이 추진 됐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

참여 자격이 주어진다.

공모에 신정되면 5년간 최대 100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또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가 적용돼 소비 촉진과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자율상권구역은 행정 주도 지원을 넘어 상인과 임대인이 협력해 상권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코스피 사상 첫 5500선…'18만전자' 가시권

6.44% ↑…4거래일 연속 상승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호조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 호조에 힘 입은 코스피가 사상 처음 5500선을 넘어섰다. 12일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6세대 제품 HBM4의 양산 출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장중 전해지자 상승폭을 더욱 키우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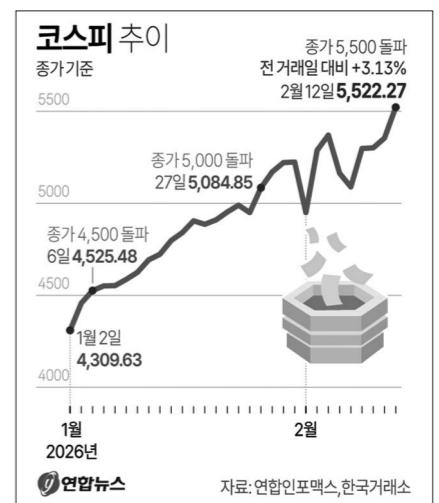
이날 상승장의 주역인 삼성전자는 6.44% 뛴 17만8500원에 장을 끝냈다. 주가는 장중 17만9600원까지 오르며 '18만전자'를 가시권에 뒀다.

같은 반도체 대형주인 SK하이닉스 종가는 3.26% 오른 88만8000원이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67.78p(3.13%) 오른 5522.27p 장을 마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9일 이후 4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지수는 전장보다 70.90p(1.32%) 오른 5425.39로 출발해 역대 처음 5400선을 돌파한 뒤 상승폭을 키워 장중 고가에서 장을 마쳤다.

유기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조137억원, 1조3687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렸다. 이날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액은 지난해 10월 2일(3조1260억 원)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반면 개인은 4조4492억원으로 여대 최대 순매도했다. 연속 상승세의 출발점인 지난 9일 이후 4거래일 동안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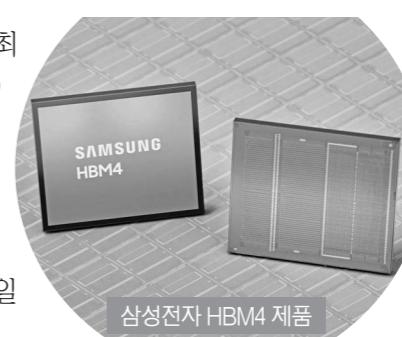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11.12p(1.00%) 오른 1125.99에 거래를 마치며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7.68p(0.69%) 오른 1122.55로 출발해 보합권 내 등락하다 상승세로 돌아섰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855억원, 688억원 순매수했으며 외국인은 1051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엄재용 기자 djawody0316@

삼성전자, HBM4 양산…세계 최초·최고 성능

개발 착수부터 업계 표준 상회 목표…최대 13Gbps 구현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산업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6세대 제품 HBM4의 양산 출하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HBM4 개발 단계부터 국제반도체 표준협의기구(JEDEC) 기준을 상회하는 성능 목표를 설정하고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제품에는 최신 1c D램(10나노급 6세대)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업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확보했다.

삼성전자는 애초 이번 설 연휴 직후 HBM4의 양산 출하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고객사와 협의를 거쳐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HBM4는 데이터센터 환경에 최적화된 최고 수준의 성능과 안정적인 신뢰성을 동시에 갖췄으며, 고객사는 삼성전자의 HBM4를 통해 GPU 연산 성능을 극대화하는 한편 서버·데이터센터 단위의 전력 소모와 냉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공정위, 설탕 담합 3사에 4083억 과징금 철퇴

사업자당 평균 부과액 최대

일 밖혔다.

3개사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했다.

실제 이들은 설탕의 주재료인 원당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상승분을 신속히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한 후 이를 실행했다.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관련 매출액은 3조284억원이며, 부과 기준을 15% 가 적용됐다.

업체별로는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 원,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이다.

윤용성 기자

국민연금공단 광주본부 '溫-마음으로' 연탄나눔

직원 강의로 기부 1000만원 달성…'1000만클럽' 브랜드화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12일 지역사회 내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돋기 위해 사랑의 연탄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는 광주본부의 사회공헌 특화사업인 '溫-마음으로' 일환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후원은 예산 배정이나 단순 모금이 아닌 직원이 노후준비 전문강사로 활동하면서 받은 강의료를 기부해 누적 1000만원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본부는 이를 '1000만클럽'으로 브랜드화하고 기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1000만클럽 달성을 기여한 전주완주군 윤영선 팀장에게 광주지역본부 사회공헌위원회가 수여하는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휘발유 ℓ 당 57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유류세에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0%의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기한을 오는 4월 말까지로 늘린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시작된 이후 20번째 연장 결정이다.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5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경유는 ℓ당 58원, LPG부탄은 ℓ당 20원 경감된다.

정부는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